

# 1. 가입국의 자격 요건

## 1) 아시아의 범위 설정과 지역(주의)

아시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관점까지 고려한다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이렇듯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연합의 범위를 단순히 일률적으로 지리적 기준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지리적 개념을 의미하지만, 현재의 국제관계로 볼 때 지리적 접근성을 기초로 한 지역 이상의 개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는 국가들 사이의 지역구성이라는 경제적 개념, 같은 문화나 역사, 언어 등을 공유하는 국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개념까지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Andrew Hurrell의 지역주의에 대한 5가지 분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 흐름에 대하여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과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의 발상을 넘어서는 지지학(地知學, geo-knowledge)의 시각에서 세계질서를 조망해야 한다<sup>2</sup>.

최근 활발히 진행중인 아시아연합(United Asia; UA<sup>3</sup>)도 단순히 지정학적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아시아 내에도 각국의 이해와 정치 내·외적 요청에 의해 APEC, ASEAN(+3)(+6), EAS, ARF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적으로는 아시아공동체론, 또는 아시아협력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협력체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아시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아시아연합의 참여범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아시아 연합의 자격요건

새롭게 구성될 아시아연합은 지정학을 넘어 지지학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리적 입지를 초월한 **경제·가치·문화를 공유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아시아연합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되, **아시아만의 같은 꿈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연합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그림 1-1 참조).

따라서 동반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범아시아권 국가 내에서**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듯 개방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이유는 아시아연합의 취지가 공동체 외 국가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아시아의 경우 경제, 안보분야 등 지역공동체가 자국의 입장과 현실에 따라 크게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크므로(그림 1-2 참조), 중국적으로 아시아권의 경제, 안보, 사회·문화의 대표성있는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아시아권국가를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시아연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한·중·일)간의 경제적 연대를 시작으로 ASEAN+3** 형태로 발족한 다음, 공동체로서의 정치·경제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회원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후술).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협력과 통합에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의 지지학적 관점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을 상기할 때, 지리적 위치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깊이있는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아시아연합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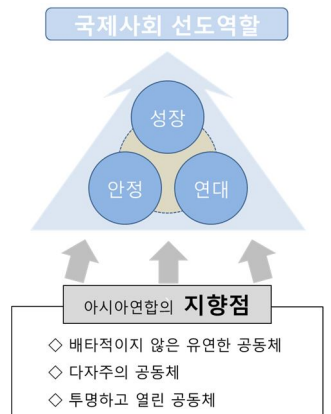


그림 1-1 아시아 연합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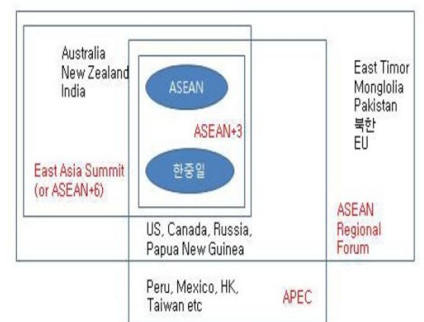


그림 1-2 아시아 지역협력체

<sup>1</sup> 이 글에서는 협의의 아시아, 광의의 아시아, 범아시아로 구분한다. 협의의 아시아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며, 광의의 아시아는 중동, 중앙아시아, 극동지역, 동남아시아, 인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범아시아는 광의의 아시아 지역에 태평양 연안국가를 포함한 지역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말한다.

<sup>2</sup>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제2개정판)(경기: 한울아카데미, 2008) 6장 참조

<sup>3</sup> UA라는 약어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과의 구분을 위해서이다. 아프리카연합은 53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국제 정 부간 기구로,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AEC)와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 2. 아시아 연합의 구조

주지한 바와 같이 아시아연합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회원국의 성장, 안정, 연대를 구현하는 조직이다. 이를 토대로 제안된 아시아연합의 구조는 <그림 2-1>과 같다.

EU와 달리 아시아연합은 경제적 격차, 사회적 이질성, 문화적 차이, 정치·안보의 문제 등으로 의회의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사법기관은 입법기관의 구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성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만을 구조화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UA가 대표성을 갖고 공동체로서 의견을 합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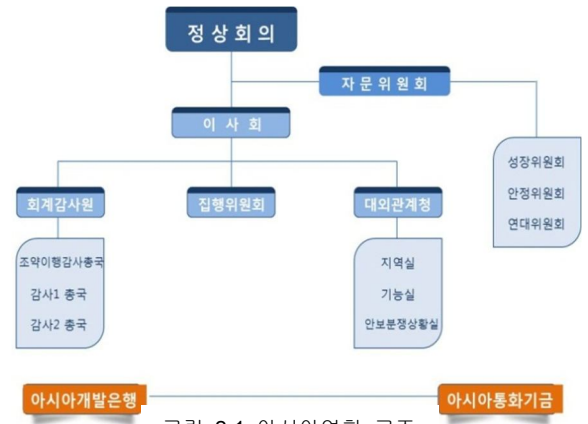


그림 2-1 아시아연합 구조

### 1) UA정상회의(United Asia Council ; UAC)

UA정상회의는 연 4회(3·6·9·12월)의 정기회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회원국의 1/3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되는 특별회로 구성된다. UAC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이사회에서 수립된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그림 2-2 참조). 상임의장(President of UAC)은 UA정상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5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선출된 상임의장은 UA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대외관계청장과 함께 제3국과의 정상회의 참석하는 등 **형식적으로 UA를 대표**한다.

### 2) UA이사회(Council of United Asia ; CUA)

UA이사회는 **실질적인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자문위원회(성장/안정/연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게 된다(그림 2-2 참조). 각국에서 파견된 이사회 구성원들은 6개월단위로 순환하여 의장직을 수행한다.

### 3) 집행위원회(Asian Commission; AC)

집행위원회는 아시아연합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아시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 1,2총국, 사회·문화총국, 환경·에너지총국, 정치·안보총국, 행정총국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은 아시아연합의 사무총장을 겸직하며, 대외관계청장 궐위시 대외적으로 아시아연합을 대표한다.

### 4) 대외관계청(Asian External Acton Service ; AEAS)

대외관계청은 일반국가의 외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외교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the Foreign Affairs: HR)는 사무총장 및 3실장(지역실, 기능실, 안보분쟁상황실)과 더불어 AEAS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지휘부(Corporate Board)'를 구성하며, **대외적으로 UA를 대표**한다. 최고지휘부는 '아시아연합외교장관회의'의 자문을 통해 대외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실은 미주,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 유럽담당 5개국으로 구성되며, 기능실은 UN, 환경, 경제통상, 소프트파워, 글로벌이슈 담당 5개국으로 구성된다. 분쟁상황실은 세계각국의 안보 분쟁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5) 회계감사원(GAI), 아시아은행(AB) 및 아시아통화기금(AMF)

회계감사원(Government of Audit and Inspection; GAI)은 회원국의 UA조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조약이행감사총국), 집행위원회(감사1총국)와 대외관계청(감사2총국)을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아시아은행(Asian Bank)은 현재의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의 역할을 강화하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부 또는 기술원조를 통해 역내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은 보다 장기적인 구상으로서 차임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확대 개편하여, 거시 경제적 화폐금융정책을 주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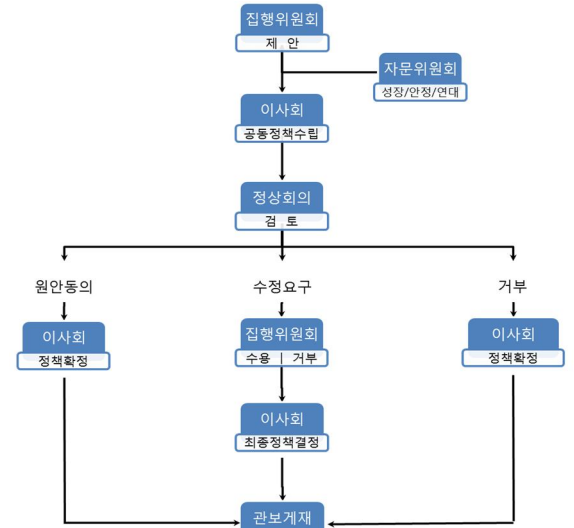


그림 2-2 정책결정을 위한 협력절차

### 3. 아시아연합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 1) 아시아연합의 필요성

**성장**

첫째,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국가들이 점차 내부적 수요에 의존하면서 이웃나라들과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개방된 시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연합은 역내교역의 막대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동반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후진국으로 이동하여 후진국의 성장률이 가속된다는 수렴가설에 따르면, 격차가 큰 아시아국가 사이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Barro, Sala-i.Martin의 연구<sup>4</sup>). 셋째, 질과 카라스(Gill and Kharas; 2007)가 동아시아의 성장경험을 분석하면서 강조해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아시아연합은 더 큰 시장의 형성과 생산의 전문화, 국력을 초월한 투자,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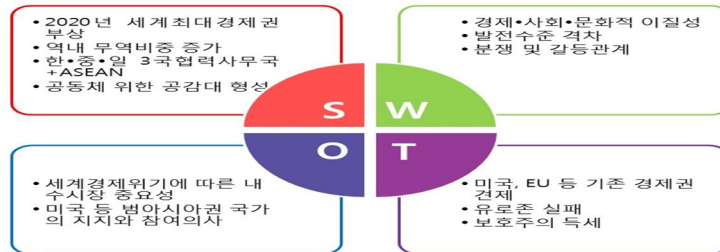
협력이 이웃국가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경쟁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지속된 영토분쟁으로 협력보다는 반목의 세기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아시아연합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연대**

아시아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경제분야 특히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박재훈; 2002). 왜냐하면 아시아는 역사적 갈등과 다양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만큼, 정치·안보 분야의 연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고 분산된 시민연대를 통해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연성지역주의(soft-regionalism)가 필요한 것이다(T.J.Pempel;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sup>5</sup>. 시민연대에 의한 사회·문화적 동질성은 아시아의 공동체의식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한류’의 중심지로서 아시아문화의 주요 원천으로, 아시아의 연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연성권력(soft power)을 활용한 사회·문화적 연대를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 2) 아시아연합의 실현가능성 : 아시아연합 구성 전략

##### (1) SWOT 분석



##### (2) 단계적 연합

먼저, 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경제협력 논의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문화·사회적으로 타지역공동체에 비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없는 공동체의 형성은 큰 의미가 없고 실현도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태동하고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연합의 형성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경제·정치·사회·문화 부문별 구체적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 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시아 전 지역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일경로(single-track) 전략을 택하는 것보다, 먼저 몇몇 국가들이 소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한 후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가는 다경로(multi-track)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다음단계로 경제적 통합 정도가 높고 거시경제적 지표가 양호한 **ASEAN** 국가들을 점차 포함시키며, 향후 범아시아권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0년까지 APEC 역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는 ‘APEC 보고르 선언’은 의미가 있다. 이렇듯 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정치·사회·문화 부문별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완성된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sup>4</sup> 기초여건이 상이하더라도 동일체제 내에서의 소득은 수렴한다(1980년 미국 각주의 소득이 매년 1%가까이 수렴)

<sup>5</sup> 백영서,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창비 2005); 24-25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데이비드 드논,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부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의 질서 재편, 경기: 도서출판 한울, 2010.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미래 대예측, 경기: 위즈덤하우스, 2012.
- 매일경제 국제부, One Asia 전략보고서, 서울: 매경출판, 2010.
- 장대환, 원 아시아 모멘텀, 서울: 매경출판, 2011.
- 백영서 외,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서울: 창비, 2005.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제2개정판), 경기: 한울아카데미, 2008.
- 한국정치학회,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 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 서울: 법문사, 2008.
-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EU정책 브리핑(제 2차 개정증보판), 서울: 애드컴서울, 2010.
-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위기의 유로, 진전되는 통합, 서울: 애드컴 서울, 2011
-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법 체계 변화, 2010.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2009~2012), 서울, 2009~2012
- 전홍택, 박명호 외, 동아시아 통합전략(Ⅰ) :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KDI 연구보고서 2010-4),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전홍택, 박명호, 동아시아 통합전략(Ⅱ):한·중·일을 중심으로(KDI 연구보고서 2011-0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이숙중 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 논 문 >

- 김종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아시아 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국가 "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6. 2011): 185-212
- 윤종철.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5): 104
- 김경동.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의식"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2011) : 37-58
- 김재홍. "동아시아 경제통합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유럽 경제통합 과정과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동서연구 제17권 제2회(2005): 35-58
- 전가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 동서연구 제 16권 제1장(2004): 89-120
- 유현석.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 신아시아 외교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2008): 157 -187
- 허만. "유럽연합의 통합정치와 그 경험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의 적응과 한계성"유럽연구 통권 제7호(여름,1998): 77-118
- 박제훈. "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주요국 시각" 비교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4): 205-248
- 박제훈. " 동북아 지역통합 모델과 통일방안" 비교경제연구 제 15권 제1호 (2008): 255-286
-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 한국학술진흥재단(2007): 190-225
- 최영중. "지역협력체 본부 소재지 결정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2010): 103-125
- 백훈."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 13 권 제 1 호 (3. 2006): 101-156
- 박성훈."유럽 경제통합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교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2001):33
- 손병해."대륙별 시장통합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의의" 동북아 지역협력과 철강공동체 실현방안 국제세미나 논문(2002): 129-162
- 박제훈. "동북아협력에서 아시아공동체로" East Asia Brief : 6-14
- 곽재성."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현황과 발전과정 - 내적통합노력과 외적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 84-127